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25.(월) 11:00 < 11.26.(화) 조간 > 배포 2024. 11. 25.(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1~10월 수출 5,658억불 기록, 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치
- 박성택 1차관,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1.25.(월)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불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누계로는 +396억불 흑자로 '18년(608억불)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다.

품목의 경우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총 9개 수출이 증가하였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4.1~10월 누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불(+47.2%)을 기록하였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591억불을 기록,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3년 580억불을 한해 만에 재경신하였다. 선박 수출도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불을 기록, 주요 품목 중 컴퓨터(+67.6%, 103억불),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을 위주로 견조한 수출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계를 중기까지 확장하여, 대외 교역환경을 정밀 진단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향후 미국 신(新)정부 출범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고 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